

# My Debut Stage **탁영아**

데뷔 무대는 잊혀지지 않는 추억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에 값지다. 이 코너는 왕성히 연주활동 중인 피아니스트의 데뷔 무대 소개를 통해, 벅찬 감동을 공유하고 첫 음악회를 준비하는 피아노 학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재해오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에서 활발히 공연을 꾸며온 피아니스트 탁영아가 연주인생에서 중요한 잊혀지지 않는 다양한 데뷔 무대들을 되돌아봤다

19 88년 내 나이 9살되던 해 나는 부산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시향과의 협연무대에 서게 되었다. 부산시향이 주최한 협연자 오디션에 합격하여 얻게된 기회였는데, 협연무대는 처음이었기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떴던 기억이 난다. 이 음악회를 위해 당시에 다니던 피아노 학원에서 연주할 곡인 모차르트 <협주곡 21번, K467>을 밤늦게까지 연습하곤 했다. 친구들과 방과 후 어울리는 시간을 즐기고 피아노에 매달려야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연습을 하다 지칠때 즈음 선생님께서 사주신 우등과 김밥이 어린마음에 얼마나 꿀맛이었던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기에 멋모르고 오른 무대였지만, 큰 무대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솔리스트로 연주하면서 아마 무대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피아노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내년 봄에 베니스 심포니와 같은 곡을 다시 협연하게 되었는데 감회가 새롭고 벌써 기대가 된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나는 줄리어드 음대 2학년에 재학 중 교내 협주곡 콩쿠르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운 좋게도 우승하여 링컨센터에서 줄리어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학부생뿐만 아니라 박사과정까지 참가하는 콩쿠르였기에 부담이 되어 도전할지 말지 고민하던 어느 날, 지정곡이었던 모차르트 <협주곡 17번, K453>을 기숙사에서 음반으로 듣다가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 곡에 단번에 이끌려 배워보고자 마음 먹었던 기억이 난다. 자상한 할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지휘자 오토-베르너 뮐러(Otto-Werner Mueller)와 함께했던 이 무대는 뉴욕에서의 협연 데뷔 무대였는데, 특히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했던 친구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연주

가 참 뜻깊게 느껴졌다. 특히 청중석에는 한국에서 오신 어머니 뿐만 아니라 줄리어드 총장 조셉 폴리시(Joseph Polisi)와 나의 은사였던 마틴 캐닌(Martin Canin) 선생님,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사사하고 내겐 어머니 같으신 당시 미시건 주립대 교수셨던(현재는 피바디 음대 교수로 계시는) 문용희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큰 힘이 되고 기뻐다. 협연을 준비하고 연주하는 기간동안 모차르트 <협주곡 17번>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난다. 이 곡은 지금도 내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곡들 중 하나다.

2005년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의 피아노 부문에 입상한 계기로 2006년 통영 국제 음악제에 초청되어 펼친 연주도 기억에 남는다. 독주회와 독일 출신의 말롯 쿤텟과 챔버연주를 했는데, 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아티스트들이 많이들 공감하듯 국내 연주는 부담도 되지만 그만큼 더 기대되고 의미있게 다가온다. 독주회 프로그램은 하이든·쇼스타코비치·리스트·슈만 그리고 윤이상 선생님의 곡이었다. 이날 연주한 곡 중 윤이상 선생님의 <피아노를 위한 다섯개의 소품>(Funf Sucke fur Klavier)은 난이도가 높은 곡이지만 참 좋아하고 즐겨 연주하는 곡이 되었고,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처음 연주하게 된 그의 프렐류드들은 참으로 매력적인 곡이라 느꼈으며, 슈만 <카니발>은 내 자신이 흥뻑 빠져들어 진심으로 즐기며 연주했던 기억이 난다. 특히 그 해는 피바디 음대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해여서 학기가 시작될지 두 달만에 한국에 와서 연주해야 했다. 수업들을 빠지면서 읽어야 할 책과 써야 할 과제가 많아 비행기 안에서나 호텔에서 틈틈히 공부를 병행해야 했고 그럼으로써 연습하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



1988년 부산시향 협연


줄리어드 오케스트라 협연

카네기홀 독주회에서 은사 마틴 캐닌 부부의

작곡가 자이르트와

을까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그럴수록 더욱 집중을 하려 노력했고 다행이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었다. 연주시에는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저명한 아티스트들이 참가하는 국제음악제에서 독주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감사했고, 특히 연주 때 무대로 나오는 순간부터 온몸으로 느껴졌던 청중의 진지함은 아직도 생생하다. 주최측의 배려로 안정된 상황에서 집중해 연습할 수 있었고, 덕분에 무사히 연주를 끝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습 틈틈이 보았던 통영의 아름다운 바닷가와 자연, 그리고 특유의 맛깔난 음식들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2012년에는 Korean Music Foundation의 초청으로 뉴욕 카네기홀 와일홀에서 독주회를 가지게 되었다. 클레멘티·주디스 자이몬트(Judith Zaimont)·레온 커쉬너, 그리고 슈베르트의 곡들을 연주했는데, 특히 미국 저명한 작곡가 중 한 명인 자이몬트의 <마법사들>(Wizards)은 뉴욕 초연이었다. 에리조나주에 거주하던 작곡가 자이몬트가 뉴욕까지 오셔서 참석해 한층 뜻 깊었다. 이 작품은 내가 참가한 2003년 산 안토니오 국제 콩쿠르를 위해서 작곡된 곡으로, 콩쿠르에서 내 연주를 듣고 작곡가가 녹음할 것을 제안해 올버니 레코드(Albany Records)에서 음반으로 발매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모로 내게 익숙하면서도 소중한 의미를 가지는 곡이었고 그런 곡을 뉴욕에서 초연 할 수 있어서 기뻐다. 또한 독주회 후반에 연주한 슈베르트 후기 소나타를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참으로 높고 깊은 산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성숙함과 순수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지닌 음악을 접하면서 많이 배우고 연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축복이란 생각을 했다. 뉴욕에 있는 음악인들·친구들·그 외에 청중과 함께 독주회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또 이 독주회를 계기로 뉴욕 파커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사와 계약을 맺게 되기도 했다. 연주회를 앞두고 프로그램을 지인들 앞에서 연주해보고 또 피아노 앞에서 대답이 잘 안나올때는 악보만 가지고 공부하거나 작곡가들의 관련서적과 그들의 다른장르 곡들을 접해보는 등 나름대로 여러방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연주 전 물론 긴장이 되었지만 그날 나는 무대 위에서 표현하고자 하고 의도한 것들을 집중해 마음껏 소통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나 자신도, 또 청중과도 더욱 깊이 하나되며 빠져든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연주자는 항상 진행형이다. 여든이 넘으신 나의 스승 레온 플라이서는 아직도 미국전역과 유럽 및 아시아를 다니시며 연주와 지휘, 그리고 티칭을 병행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는다. 어렵고 외로운 음악인으로서의 길이지만 연주를 함으로써 청중과 함께 느끼는 희열과 감동, 그리고 음악과 하나됨은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연주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배움에 대한 기쁨과 성취감도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내가 걸어온 연주자의 길에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스승님들의 노고, 그리고 나를 아껴주시는 주위 분들의 무한한 응원이 있었다. 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대신 나도 앞으로 내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조심스레 희망해 본다. 



## 탁영아

예원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예고 재학 중 미국 유학길에 올라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한 뒤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총장 장학금을 수혜하며 피바디 음대에서 박사 과정을 취득한 후, 뉴욕 카네기홀 와일홀 및 링컨센터를 포함해, 캐나다·미국·일본·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지에서 호평 속에 공연을 펼쳐왔다. 일찍이 삼익 콩쿠르 금상, 조선일보 콩쿠르 우승을 포함한 국내 콩쿠르를 석권하며 주목받았고 경남 국제 콩쿠르와 힐튼 헤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 상위 입상 등으로 해외에서도 실력을 입증했다.

9세 때 부산시향 협연을 시작으로 무대에 데뷔해 세계 각국에서 독주회는 물론, 베니스 심포니와 NEC 필하모니아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악단과 협연 및 실내악 무대를 활발히 펼쳐왔으며, 2012년부터 파커 아티스트와 계약하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올버니 레코드, 클래식스 등에서 음반을 공개했고, 미국 사우스이스턴 대의 피아노 전공 교수로 공개 채용되어 현재 상주 음악가로 재직 중이다.